

러시아 민속음악 전주에 상륙!

문화공간 이룸, 러시아 올리브셰바 민족오케스트라 초청공연

문화공간 이룸은 러시아 올리브셰바 민족 오케스트라를 초청해 오는 11월 3일 오후 7시 30분에 전주시 효자동 서도프라자 10층 문화공간 이룸 아트홀에서 첫 기획무대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무대에 오르게 된 러시아 올리브셰바 민족오케스트라는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라드에 소재한 9번 음악학교에서 지난 1982년 설립되었다.

악단을 이끄는 이리나 미하일로브나 실라예바는 니즈니 노브고라드 음악원 출신으로 러시아 공훈예술가로 알려져 있다.

구성원은 학생들과 졸업생, 교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오케스트라의 전체 단원은 6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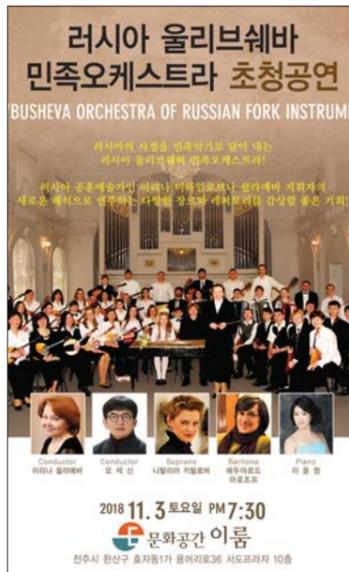
이들이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는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으며 민속음악 뿐 아니라 러시아의 유명한 클래식 음악 작곡가들의 작품과 클래식 음악들을 새롭게 해석해 러시아의 민족악기로 연주한다.

주를 한다.

악단은 국내, 국제콩쿨에서 다수의 수상을 했고 다양한 페스티벌에 참여를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2016년에는 전주세계소리 축제에 초청되어 소리문화의전당 연주회에서 연주를 가진 바 있다.

이날 무대에서는 러시아 민요부터 백화 등이 연주되며 러시아 성악가(소프라노&바리톤), 그리고 피아노(문화공간이룸 이사장이자 피아니스트 이윤정)와의 협연무대가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지휘자로부터 악기에 대한 소개와 설명이 함께하므로 관객들에게 생소한 악기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해결해준다.

러시아의 민족악기가 대중들에게 많이 생소한 악기로 관객들로 하여금 굉장한 호기심과 관심을 갖게하기에 충분하며, 그 무대에 함께 즐기며 흥취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연 및 티켓 문의는 전화(063-223-5323)로 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지난 31일 장수군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군민의 문화공연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제14회 산골 국악한마당' 공연이 열렸다.

얼쭉~ 신명나는 국악의 향연

장수산골국악한마당 성료... 살풀이 춤·남도민요 등 다채

장수군은 지난 31일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군민의 문화공연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제14회 산골 국악한마당' 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수군이 주최하고 (사)금강유영애소리보존회가 주관하는 이번 국악한마당에는 300여명의 관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교방무, 단막극 '뽕파전', 살풀이 춤, 남도민

요, 풍물판 굿과 진도북춤 등의 다양한 작품의 공연이 펼쳐져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신달호 부군수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공연의 향유 기회가 적은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 내 문화자원을 활용한 공연 기회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꿈을 향해 도약을 준비하다' ... 순창군 옥천인재숙, 전북 건축문화상 은상 수상

순창군 옥천인재숙이 전북도에서 주최한 '제19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시상식'에서 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와 관련 지난 30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2000년 행사를 시작해 올해로 19회를 맞는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공모에는 일반 사용승인 분야, 학생계획 분야, 건축사진 분야 등 7개 부문에 총 100점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지난 23일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의 공정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각 분야별 수상작 33개 작품을 선정했다. 사용승인 공공부문 은상을 수상한 옥천인재숙 기숙동은 '디디다: 꿈을 향해 도약을 준비하다'라는 작품명으로 공모했으며, 건축사사무소 녹엔지니어링이 설계하고 (유)해인종합건설이 시공했다.

기숙동은 연면적 1,879.79㎡, 지상 4층 규모의 건축물로, 기숙 학생들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체력단련실, 휴게실 공간배치 및 회의실, 강의실 등을 갖춰 입학생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숙동 건축은 기존에 한 건물에서 남학생 여학생이 함께 쓰던 불편을 해소했다. 기숙동 건축으로 기존 건물은 남학생이, 새로운 건물은 여학생이 쓰게 됨에 따라 훨씬 자유롭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조건을 갖췄다.

양승종 옥천인재숙 원장은 "작년에 완공된 옥천인재숙 기숙동은 저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부지확보와 행정절차 추진 등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물로 이뤄졌다"라며 "건축물의 외관



순창군 옥천인재숙이 전북도에서 주최한 '제19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시상식'에서 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편안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내부시설을 잘 갖춰놓은 점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문화상 출품작은 건축문화 발전을 확대하고 건축인의 동기부여 및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내일까지 도청 1층 기획전시실과 로비 등에 전시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부안청자박물관, 국제 핸드메이드&리빙페어 초청 참가

4일까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서 열려

부안청자박물관은 오늘부터 4일까지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국제 핸드메이드&리빙페어에 초청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했던 부안청자를 관람객들과 바이어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국제 핸드메이드&리빙페어는 충청남도과 충남공예협동조합이 주최하고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후원하는 국내 유일 공예전문 박람회로 한 해 공예문화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수공예품 전시와 국내에서 생산된 공예품들의 판로 확보, 공예

기반의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하는 등 국내공예산업에 한 눈에 볼 수 있는 공예 페스티벌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무형문화재 제29호 사기장 이은규 선생이 전통기법으로 재현한 고려상감청자 재현작품과 부안청자박물관 도예가 김문식, 강의석, 조가을 선생의 예술성과 실용성이 조화롭게 섞인 도자기 및 전통을 계승한 상감청자가 함께 전시된다.

부안청자박물관 관계자는 "박람회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부안의 빼어난 자연경관이 수록된 홍보안내 책자를 배부해 관광객 유치에도 일조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